

# 흥행예약·상장예약... 넷마블, 일낸다

올해 최고 기대작 펜타스톰 2분기 론칭  
상장 절차 본격화...시총 최대 13조 전망

출시하는 게임마다 인기를 끌며 모바일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넷마블게임즈가 또 하나의 기대작을 준비하고 있다. 관심을 모으는 상장 절차도 본격화했다. 넷마블이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게임은 올해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는 모바일 신지정령전(MOBA) '펜타스톰 for Kakao'.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며 4월 중 공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고 2분기 내 정식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펜타스톰은 PC에서 주로 하던 MOBA 장르를 모바일에 최적화한 게임. 언제 어디서나 5대5 실시간 대전을 즐길 수 있다. 탱커와 전사, 아처, 마법사, 암살자, 서포터 등 6개의 직업, 22종의 영웅이 등장한다. 차별화된 스킬과 역할을 통해 대전마다 새로운 전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웅은 출시 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MOBA장르의 게임 특징 중 하나인 영웅 별 스킨도 준비해 이용자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다.

게임은 또 MOBA장르의 스트레스 요소 중 하나인 '막타' 개념을 없앴다. 아울러 게임 속도도 일반적인 MOBA보다 빠르게 해 최대 15레벨까지 성장 가능하다. 아이템 구매를 본진으로 돌아가고 전장 어디에서든 윈터치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모바일 가상 패드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트롤을 제공하는 한편 퀵 메시지와 음성 채팅을 지원해 팀원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 5대5와 3대3, 1대1 등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를 지원한다. 전장 내 각종 몬스터 및 풀숲을 활용해 팀원간 전략 플레이도 즐길 수 있다.



올해 출시될 게임 중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는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펜타스톰 for Kakao'. 2분기 내 정식 론칭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넷마블게임즈

넷마블은 펜타스톰에 대한 e스포츠 비전도 최근 공개했다. 처음부터 대대적 투자를 하는 방식이 아닌 모바일 MOBA 대중화를 통해 이용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린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프로 리그까지 계획하고 있다.

넷마블은 펜타스톰에 앞서 수많은 모바일 게임을 흥행시켰다. '리니지2 레볼루션'과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마블 퓨처파이트', '쿠기잡' 등 국내의 인기 게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매출 1조원, 2016년 매출 1조5000억원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 출시한 '레볼루션'은 출시 첫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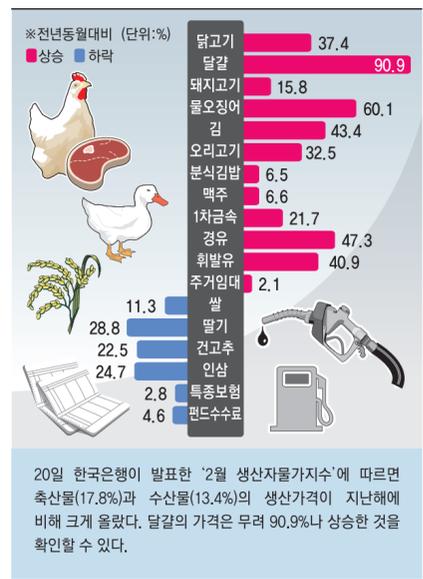
매출 79억원, 한 달 만에 2060억원의 매출을 벌어들이는 대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매출 중 해외매출 비중이 51%로 절반을 넘겼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글로벌 모바일 통계 분석 업체 엠에니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해 매출 기준 글로벌 7위 게임퍼블리셔, 구글플레이 매출 기준으로는 글로벌 3위 게임퍼블리셔에 올랐다. 넷마블은 현재 일본, 중국 등 주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게임을 내놓고 있으며, 해외 게임 개발사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15년엔 북미·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퍼즐 장르 세계 2위 개발사 점시티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 2월엔 미국 게임사 카밤 벵쿠버 스튜디오도 인수했다.

넷마블은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본격화 했다. 신주 1695만3612주(공모 비중 20%)를 공모한다. 공모 예정가는 12만1000~15만7000원, 총 공모금액은 밴드 하단 기준 2조513억원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 규모는 10조원에서 최대 1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4월 11~20일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공모가를 확정할 뒤 4월 25~26일 양일 간 청약과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 데이터로 보는 경제



컴투스프로야구2017.

## 야구게임 끝났나요?

개막일 앞두고 업데이트·이벤트 풍성  
넵툰 신작게임명 '레전드라인업' 확정

한국프로야구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구 게임들도 본격 서비스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먼저 넵툰은 자체 개발한 야구 게임명 '레전드라인업'으로 20일 확정했다. 내달 출시 예정인 레전드라인업은 10개구단 이미지와 현역 선수 퍼블리시타임을 활용해 개발 중인 매니지먼트 게임이다.

엔트리소프트는 PC 온라인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프로야구 매니저'의 '챌피어의 기억' 이벤트를 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이벤트를 통해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 모바일게임 '프로야구 H2'의 아이템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프로야구 H2는 엔트리소프트가 개발한 모바일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이다.

넷마블게임즈는 모바일야구 게임 '마구마구2017 for Kakao'의 사전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 예정인 업데이트 전까지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내 '마구볼' 2017개와 함께 게임 내 고급아이템인 '7성 선수 선택권 카드'를 지급한다. 넷마블은 또 이달 말 '이시만루2 KBO'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게임명도 '이시만루2017'로 변경한다. 넷마블은 게임 재화 및 고급 아이템을 주는 사전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

컴투스도 3월 말 3D 모바일 야구게임 '컴투스프로야구 2017'에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엔 이에 앞서 게임성 강화를 위한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김영근 기자

### '서머너즈 워' 오프라인 대회 성료

글로벌 인기 모바일게임 '서머너즈 워'가 모바일 e스포츠 포문을 열었다.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의 유저 오프라인 대회 '월드레나 인비테이셔널'을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서울 마포구 OGN e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엔 관람객들이 600여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두 시간 넘게 치열한 경전이 펼쳐졌다. 결승에선 '키스대냐'가 '패패승승승'과 치열한 경기 끝에 2승을 선취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현장엔 수천 명의 인원이 넘는 1000여명이 방문했고, 유튜브 채널의 생중계 동시 시청자수도 3000명에 육박했다. 경기 종료 후 12시간 만에 영상 시청수는 1만9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김영근 기자

### '에어로 스트라이크' 사전예약 20만 돌파

조이맥스는 자회사 디포게임즈가 개발 중인 모바일게임 '에어로 스트라이크'의 사전예약자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의 성장 요소를 결합한 비행 슈팅 게임으로, 기체와 드론의 조합으로 자신이 원하는 편대를 만들어 적의 기체와 전투할 수 있다. 작기마다 개성 넘치는 외형과 움직임으로 슈팅의 재미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 조이맥스는 사전예약 참여자들에게 팝아트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정식 출시 때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선물한다. 게임은 이달 중 정식 출시 예정이며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우선 서비스된다. 김영근 기자

## 얇고 가벼운 윈드재킷, 핏도 살아있네~



방풍·방수·투습·방충기능 기본  
신축성 소재로 활동성도 탁월  
슬림한 핏으로 옷맵시도 살려

어느 시인은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시인의 바람이 진 짜 바람이건 유수나 상징의 바람이건, 8할 중 3할은 봄바람이 아니었을까. 봄은, 바람의 계절이다.

나른하게 내려앉은 햇빛은 좋지만 바람은 번거롭다. 옷깃을 한껏 치켜 올려도 사정없이 피부까지 파고드는 바람. 애써 정돈하고 나온 머리칼을 순식간에 제비집처럼 만들어버리는 것도 바람이다.

봄바람을 막는 방법은 역시 바람막이재킷이다. 방풍재킷 또는 윈드재킷이라고도 불린다. 봄에는 바람막이재킷 한 벌을 백팩 속에 챙겨 다니는 것이 요령이다. 얇지만 따뜻하고, 가벼운 데다 바람을 확실하게 막아 주는 기특한 봄이 때문이다.

### ●봄철 바람막이 재킷은 방풍·투습기능을 꼼꼼히 살펴야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움직임을 최적화된 핏(Fit)을 자랑하는 남성용 윈드재킷 3종을 출시했다. 입체적인 커팅으로 활동성이 탁월하며, 몸에 밀착

되는 슬림한 핏으로 옷맵시를 살려준다.

밀레 '에르조그 재킷(25만9000원)'은 밀레에서 자체 개발한 기능성 방풍소재인 윈드엡지를 적용했다. 바람과 습기를 차단하면서 땀을 배출해 어떤 외부환경에서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 '루이스 재킷(17만9000원)'과 '알레지 재킷(19만9000원)'은 인체 곡선에 맞춘 역동적인 절개라인으로 활동성을 강화했다. 특히 루이스 재킷은 천연 방충성분을 원사에 주입한 안티버그 가공으로 야생진드기 등 해충이 접근을 방지해준다.

알레지 재킷은 밀레가 고어텍스 대체재로 사용하는 기능성 소재인 드라이 옛지를 적용했다. 방수·투습효과가 탁월하다. 트렉스타는 윈드스토퍼 '루안(23만9000원)'을 출시했다. 에이펙스(A-PEX) 라인에서 선보이는 루안재킷은 방풍·투습기능이 우수한 고어텍스 윈드스토퍼 소재를 사용했다. 차가운 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체내에서 발생하는 땀과 열기는 밖으로 배출해준다. 피팅감을 강조해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룩은 물론 도심의 일상룩으로도 잘 어울린다. 후드를 탈부착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하다.

트렉스타 김상준 의류기획팀 부장은 "일교차와 바람 등 예측할 수 없는 봄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 위해서는 방풍·투습 등 기능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패션그룹 행지의 스위스 라이프스타

일 아웃도어 브랜드 와일드드루즈가 선보인 바람막이재킷은 '에텔바이스(27만9000원)', 원단에 기능성 라미네이팅 처리를 해 기존 레이저 소재의 단점인 투습기능을 극복한 제품이다. 라미네이팅 처리를 한 2.5레이어 원단소재는 가벼운 것이든 물론 방수·방충기능이 뛰어나고 내구성도 좋다. 장시간 입어도 쾌적하다.

스위스 모터브인 에텔바이스 꽃을 패턴화한 내추럴한 프린트 디자인이 돋보인다. 로고 와펜과 스트링 락을 가죽소재로 처리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데일리 아웃도어룩은 물론 가벼운 산행이나 나들이용 트레블룩으로도 연출하기 좋다.

레드페이스는 요즘같은 간절기에 입기 좋은 '콘트라 엑스 맥킨재킷(15만8000원)'과 '콘트라 멜란 시티재킷(11만8000원)'을 선보였다. 콘트라 엑스 맥킨재킷은 레드페이스의 자체 개발소재인 콘트라텍스 엑스투오 프로소재를 사용해 방수·방충기능과 땀을 배출시키는 투습력이 우수하다. 겨울철보다 활동량이 많은 봄철에 입기 좋도록 신축성 소재를 사용해 활동성을 높였다. 암벽을 타면서 팔을 올리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콘트라 멜란 시티재킷은 디자인이 군더더기없이 깔끔한 것이 특징. 입체패턴을 사용해 생동감을 살렸다. 여성용은 허리조임 디테일을 추가해 라인을 돋보이게 해준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파타고니아 입고 클라이밍 즐겨라

26일 안벽등반 볼더러스 데이 개최

친환경 아웃도어 스포츠브랜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26일 클라이머들과 맨손으로 강촌 유선대 암장을 등반하며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을 만끽하는 볼더러스

데이(Boulderers Day)를 개최한다.

인위적으로 바위에 흠집을 내거나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오직 손의 힘으로 암벽을 등반하는 야외 볼더링 활동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순위를 매기는 경쟁이 아닌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 형식이다. 자유롭게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클라이머와 함께 새로 발굴한 루트를 제시하고 스스로 스맛을 개척하는 미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참가한 클라이머들에게는 통기성과 흡수성이 뛰어난 컨디션 장갑을 제공하는 파타고니아의 신제품 나노에어 라이트 하이브리드 재킷과 튼튼한 내구성을 지닌 뱀가 락 팬츠가 제공된다.



파타고니아

양형모 기자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